

열대야에 건강 지켜 줄 침대·식탁세트 할인

광주신세계 개점 23주년 기념 17~26일까지 축하 페스티벌 '리빙&웨딩페어' '뱅 드 신세계' 행사...패션·잡화 특가전도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가 개점 23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점 23주년 축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리빙&웨딩페어'와 '1년에 단 한번, 뱅 드 신세계' 등 식품·생활 부분 대형행사를 비롯해 패션·잡화 부문까지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특가행사가 마련돼 있다.

우선 17일부터 23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리빙&웨딩페어'를 연다. 세계 각국의 트렌디한 리빙 상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생활부문 대표 행사다. 기존 입점 브랜드 외 '바이마르 포털', '빌레로 이&보흐' 등 미입점 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특가상품도 판매한다.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어 17~19일까지 신세계 신한카드로 전액 결제 시 '디자인벤처스'의 '열리제 4인 식탁세트'를 35% 할인된 208만원(10세트 한정, 신세계상품권 20만원 증정), '시몬스'의 'LK D2007A LK G-Marconi' 침대세트를 7% 할인한 295만원(10세트 한정, 신세계상품권 25만원 증정)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17~23일 '휘슬라'의 '허브 1구 하일라이트 인덕션'을 54% 할인한 37만원, '실리트'의 '패션 4층 세트 레드(16H, 20L, 20H, 24H, 20-24 접기 증정)'를 72% 할인한 49만 8000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지하 1층 와인하우스에서는 프리미엄 와인부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와인까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인 '1년에 단 한번, 뱅 드 신세계'가 열린다.

대표 품목으로는 '샤또 무퐁 로칠드(2014)'를 51% 할인한 99만원, '몽제아 뮈네레 그랑 에세조(2015)'를 17% 할인한 50만원, '코노수르 20배럴 피노누아'를 50% 할인한 4만 5000원 등이다. 샴페인 특가상품으로 '앙드레 끌루에 실버 브뤼 750ml+그랑 리저브 375ml'을 52% 할인한 5만 5000원에 준비했다.

여기에 패션·잡화부문에서도 다양한 특집과 특가행사를 마련했다.

'아디다스'는 17~23일 사이 패션스트리트 행사장에서 '트레이닝복&리빙화 특집'을 열고 반팔티셔츠를 3만 9000원, 후드티셔츠를 4만 9000원, 트레이닝바지를 5만 9000원, 리빙화를 5만 9000원에 판매한다.

남성 매장에서는 '남성정장특집'을 열고 '지이크'와 '킨록by킨록앤더슨'의 남성정장을 각각 13만원과 13만 9000원에 판매한다. 각 100벌이 한정이다.

잡화매장에서는 '스타카토'가 선주문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 하반기 신상품을 선주문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고객에게는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페스티벌 특가상품으로는 '파프리카'의

린넨 블라우스·바지가 각 1만원(각 100벌 한정)에 판매할 예정으로, 'CC플렉트'의 트랜치코트는 9만 9000원(30벌 한정)에 한정 판매한다.

'로즈몽'의 화이트토파츠 14k 귀걸이·목걸이는 각각 14만 5000원과 19만 5000원에 선보이며, '메트로시티'의 UV 차단 이중 망사 양산은 3만 9000원(100개 한정), '피에르가르맹'의 가방은 2만 3000원(100개 한정)이다.

페스티벌 마지막인 24~26일에는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해외유명패션대전을 진행한다. '엠포리오 아르마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질 스투어트' 등 11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는 개점 23주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0일간 축하 페스티벌을 열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전경. <광주신세계 제공>

의류매장 줄이고 리빙매장 대폭 늘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홈·가전매장 확대기념 할인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매장개편(MD) 실험에 나섰다. 개점 후 20년 동안 매년 매장개편 때 의류 중심의 상품을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류매장을 줄이고 리빙매장을 대폭 확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5일 기존 8층 생활가전 매장을 흡퍼니처 상품군과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 등 2개 층으로 확대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흡퍼니처·가전 디지털 전문관 오픈 일정에 맞춰 브랜드별 10~30%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생활가전 매장에 비해 약 950㎡(300평) 정도 영업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수년간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주축한 것과 달리 가전·가구 중심의 리빙상품군의 매출은 호조를 보임에 따른 조치다.

실제 롯데백화점 광주점 생활가전 매장의 매출은 매년 7% 이상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생활가전 상품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 8.7%에서 지난해에는 12.3%까지 올랐다.

이번에 새 단장을 마친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의 LG전자 매장은 실제 주방에서 보는 것처럼 가전제품이 진열돼 있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관도 운영 중이다.

또 사오미 매장에 입점해 다양한 전자제품과 1인용 전동스쿠터인 세그웨이 '나인봇 미니'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슨 단독 매장과 소형가전 조닝, 안마의자 조닝, 카매라 매장 등도 갖췄다.

8층 흡퍼니처 매장은 가구 브랜드가 기존에 비해 4개 브랜드 늘어났다. 수제작 원목가구 브랜드 '바이헤이데이'와 '카레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최근 매장개편을 추진해 확대된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의류매장을 줄이고 리빙매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이례적인 매장개편을 단행했다. <롯데쇼핑 제공>

린트', 미국 130년 전통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 '필리', 친환경 섬유 소재 가구 브랜드 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도레'가 신규 입점했거나 예정이다.

김정현 광주영업부문장은 "급변하는 쇼핑 트렌드를 잘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매장이 무엇인지 파악해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이 백화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흡가구·리빙 디지털 가전관 오픈을 통해 고객에게 라이프스타일을 먼저 제안하는 롯데백화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제주산 생갈치 연중 최저가 판매

전년도보다 27% 할인

이마트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산 생갈치 한 마리(대·300g 안팎)를 연중 최저가인 4980원에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되던 생갈치 한 마리 가격 6780원과 비교하면 27% 상당 저렴한 가격으로, 당시 최저가였던 5900원에 비해서도 16%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갈치는 한때 마리당 가격이 1만2000원(이마트 생갈치 대 기준)까지 치솟으며 '금갈치'로 불리기도 했다.

작년 제주 연근해 수온이 높고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어장이 형성돼 갈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40% 상



당 떨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갈치를 연중 최저가 수준에 준비했다"며 "갈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어가의 부담을 덜고 장바구니 가격을 낮추는 데도 일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폭염·열대야에 '방콕쇼핑' 늘어

신선식품·가전 등 인기

폭염과 열대야가 밤낮으로 이어지면서 필요한 제품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방콕쇼핑'이 많이 늘었다.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크리아가 폭염이 지속된 최근 한 달(7월 13일~8월 12일) 동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 가전, 건강 등 주요 품목군이 대부분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이들이 늘면서 신선식품 등 식음료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 기간 G마켓에서 신선식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으며 옥션에서도 계란과 계절과일이 각각 256%, 53% 늘었다.

폭염 속 건강 관리 제품도 인기를 끌었

다.

G마켓에서는 최근 한 달 건강식품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23% 늘었다. 자양강장제(89%)와 비타민(33%)의 증가 폭이 컸다.

옥션에서도 건강식품은 작년 대비 8%, 건강 관련 용품은 15% 각각 증가했다.

직접 보고 만져본 후 구매하던 가전제품 역시 올여름에는 온라인 구매가 늘었다.

G마켓에서는 대형가전 판매량이 작년보다 17% 증가했고 냉장고(109%), TV(60%), 드럼세탁기(33%) 등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베이크리아 영업본부 김태수 실장은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온라인쇼핑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라화 폭락에 버버리 반값...직구족 증가

터키 리라화 환율이 폭락하면서 버버리 등 고가의 제품을 리라화로 저렴하게 직접구매(직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터키 여행을 위해 리라화를 미리 환전해두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5일 여행 및 해외직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터키 버버리 홈페이지에서 직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지난 9일 매매기준율 200원이 넘었던 리라화는 터키와 미국의 갈등 악화 속에 이날 160원대까지 떨어졌다.

터키 버버리는 현재 세일 중이라 국내에서 100만원 중반대인 버버리 트랜치코트를 대략 80만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다. 스웨터 등은 저렴하게는 국내 매장 정상가의 3분의 1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가방도 반값 정도다.

다만, 터키 버버리는 한국으로 직배송되지 않고 직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라 인지도 있는 배송대행업체 또한 없다.

이 때문에 소규모 배송대행업체에 물량이 몰리면 배송이 늦어질 수 있고 업체가 물건을 들고 잠적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버버리 외 다른 인터넷숍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현재 불안정한 터키 정세에서 제품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을지 물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